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’17.9.8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8차 전력수요, ‘4차 산업혁명’ 뒤늦은 반영” (’17.9.8. 전자신문)

1. 기사내용

- ☐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순서가 뒤바뀐 전력수요 전망을 내렸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
- ☐ 4차 산업혁명 전력수요 연구가 늦어질 경우, 이를 8차 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못함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설명

- ☐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전력 수요 계획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의도적으로 바꾼 바 없음

- ① 우선 7차 수급계획과 동일한 수요예측 모형을 활용하였으며,
 - 탈원전 정책기조 확정 前인 ‘17.3월에 KDI가 전망한 GDP 장기 전망을 사용하여 예측한 수요전망(초안)을 금년 7월 발표
- ② 당시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전기차에 대한 전력수요('30년 기준 350MW)를 반영하였음
- ③ 아울러, 4차 산업혁명과 전력수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8차 수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혔으며, 현재 작업 진행 중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최우석 과장 (044-203-5240)
권순목 사무관 (044-203-5242)